

시론

또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것도 병을 얻어 죽은 자식의 장례가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경찰이 쇠파이프로 때려 죽인 내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안다 하겠는가?

집중도 새끼를 잃으면 식음을 전폐하는데, 영혼을 가진 인간일진대 오죽하겠는가? 나는 세브란스병원의 영안실에서 경대군의 어머니를 보고 결코 울지 않았다. 그 울고 싶은 고통, 울어서 약간은 풀 수 있는 고통을 이 글로 대신 풀려고 한다. 나는 5년전 5월3일 막 피어나려는 21살의 나이로 경찰의 폭력에 항거하여 분신해 숨진 아들 세진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 같은 어머니가 더 있어서는 안됨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이러한 일이 다시 없을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각계, 또 정부



김 순 정

하는 경찰로 정권이 유지된다면 그 정권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정권 유지가 불안하니까 국민의 뜻을 배반하여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치인들의 약점을 이용·협박하여 소위 3당합당이란 정치적 테러를 감행하고도 모자라 국가기관인 경찰로 하여금 대낮에 서슴없이 국민을 때려죽이게 하다니.

슬프도다, 박승희양이여! 김영균군이여! 제2, 제3의 승희·영균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야당도 정치인들도 물한방울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각사퇴 운운하여 현 정권 유지를 획책하지 마시오. 어찌됐든 당신들은 살인정권의 공모자이거나 동조자들이오. 한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더러운 타협을 하느니보다는

애국애족하다 순절한 젊은이들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국민을 위하여 살고 정치한다고 앉으나서나 떠들어 대는 정치인들, 국민을 위하여 한몸을 다 바치겠다고 늘상 떠들어댄 당신들의 그 말들이 한마디라도 진정이었다면 어떻게 이 순간 목숨을 지탱하고 있을 수 있는지 부끄럽지 않소?

현정권과 더불어 국사 운운하며 현상유지를 획책한다면 이제는 국민이 더 이상 용서치 않을

이땅의 자식들이 살아서 싸우거라

분신사망 김세진씨 어머니의 애틋한 호소

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5년 사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지 이제는 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제도적 장치를...” 운운하였지만 하나도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찰이 백주에 국민을 총으로 쏘죽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열이를 죽인 최루탄을 더 독가스화함도 부족하여 화염병 처벌법을 만들었는가 하면 탄압을 강화하는 경찰관련법 제·개정 추진 등으로 살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법도 제도도 없이 대낮에 만인이 지켜보는 데서 쇠몽둥이로 국민을 때려죽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민주화 약속이 바로 이 살인행위이며 노 정권이 말하는 민주정부란 국민을 대낮에 때려죽이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경대군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백골단 몇명이 저지른 것이오”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은 인간인가? 장관은 경질하여도 살인을 수행한 경찰 총수와 지휘책임자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을 죽여야겠다는 것인가? 이 지구상에 소위 민주국가를 자칭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전투하는 전투경찰제도를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나는 정치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전투

것이오. 옛 속담에 폭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였소.

마음을 진정하고 젊은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느 집단처럼 학생들의 주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요, 이를 위한 시위였던가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여주는 통일운동을 정부가 막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따르겠는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내일은 우리 젊은이의 것이고 그들에게 달려 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전에 선배들이 가지 못한 확실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승희야! 영균아! 죽지마라.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자! 그리고 이땅의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아니면 이땅의 통일을 누가 이룩하라? 너희가 죽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눈이 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잘리더라도 또 감옥에 가더라도 죽지만은 말자!

세진이를 가슴에 묻은 지 5년, 이 어미 하나만으로 이 아픔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얼마나 많은 나같은 어머니가 생겼느냐? 너희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세진이의 장례를 다시 치러야 하는, 이 가슴에 자식을 다시 묻은 이 어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라?

경대야! 하늘나라에 가서 세진형과 편안히 쉬어라. 눈물이 앞을 막아 네 이름을 쓸 수 없구나. 경대 아버지 어머니, 자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서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살아서 자식들에게 진 빚을 갚읍시다.